

날짜: 5786 년, 9 월 20 일 (2025 년 12 월 10 일)

토라 문: 거주하다

주제: 회개한 첫 사람

창세기 37 장 29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다.” 이 짧은 구절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전 구절들 (22–24 절)에서는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함으로써 그를 구하려 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25–28 절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릴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드라쉬는 르우벤이 그 때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랍비 엘리에제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르우벤은 이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즉 아버지의 침상을 옮긴 일 (창 35:22)에 대해 회개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 굶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참회하고 있었다. 그 일이 끝난 후 그는 다시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르우벤의 회개의 행위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 엘로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너 이전에는 아무도 나 앞에서 스스로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다. 너는 자발적으로 회개한 첫 사람이다.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후손 중에서도 회개의 길을 먼저 열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인물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그는 그의 예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엘로힘께 돌아오라.” (호세아 14:2)

히브리어 단어 **בָּשָׁן** (바이야쇼브), 즉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은 **תשובה** (테슈바), 곧 “여호와 엘로힘께 돌아감”, 이라는 뜻이며, “회개”의 개념과 직결됩니다. 이 언어의 뿌리에서 연결됨은 바로, 르우벤의 “돌아 갔다”는 뜻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의 이동이 아니고, 영적 할리야 (승화)라는 “비밀”한 뜻이 담긴것입니다.

아담과 가인 역시 죄를 짓고 회개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미드라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형벌의 판결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로힘의 저주와 책망을 받은 후에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처벌 전에, 누구의 요구도 없이 스스로 회개를 선택한 첫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탈무드(Bava Kamma 92a; Makkot 11b)는 르우벤이 야후다(유다)의 다말에 관한고백(창 38)에서 영향을 받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첫번째로 회개한 자라는 설명과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전에 야후다께서 먼저 회개를 하셨기 때문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토사포트 (Tosafot)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다(유다)는 공개적으로 회개했지만, 르우벤의 회개는 비공개적이었으며, 이 회개의 시점은 야후다 (유다)보다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드라쉬는 여전히 르우벤이 회개의 첫 주도자였다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의 아버지 베에리(בְּעִירִי)를 통해 르우벤 지파의 후손으로 가르칩니다 (호 1:1). 역대상 5 장 6 절에는 베에라(בְּעִירָא)라는 르우벤의 후손이 언급되며, 현인들은 베에라와 베에리를 같은 인물로 봅니다. 회개를 촉구한 첫 예언자는 호세아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냐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 장 30 절과 30 장 2 절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들은 회개가 토라의 명령임을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독창성은 무엇일까요 숙고해 봅시다. 미드라쉬는 호세아가 회개의 위대함을 처음으로 공표한 선지자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회개가 여호와 엘로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도달한다고 선포했고, 고의적으로 범했던 죄를 의도 없이 저던 죄로 바꿀수 있도록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Yoma 86a-b). 곧, 회개의 심오한 영적 가치를 드러낸 첫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호세아이셨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 후, "이제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창 37:30)라고 탄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 깊은 윤리적 자각을 보여줍니다. 탈무드 (Shabbat 55b)에 따르면, 르우벤이 빌하의 침상을 옮긴 것은 실제로 의도적인 죄는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어머니 레아를 존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작은 어머니 라헬이 돌아 가신 후의 그 여종인 빌하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 야아콥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루우벤은 성급하게 행동했으며, 야아콥의 깊은 심중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성급한 행실이 죄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층에 영의 뿌리를 둔 르우벤과 같은 영적 인물들에게는 비록 작은 실수도 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결과적으로, 르우벤은 자신의 판단 부족을 인정하고 통회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야, 자신이 빌하의 자녀 출산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됩니다. 브라코트 60a 에 따르면, 레아는 야곱에게 열두 명의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다면, 열두 지파의 수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의 침대를 옮겼던 행동이 빌하로 부터 요셉의 대체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능성은 아직 현실이 된 것도 아니었고, 요셉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르우벤은 그 잠재적 책임감으로 인해 다시 한 층 깊이 회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르우벤의 행동은 "테슈바(회개)"라는 통로에 있어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즉, 아직 죄의 결과가 드러나기 전, 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후에 펼쳐져 나올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엘로힘께로 돌아오라. 이는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비틀거렸음이라.” (호 14:2) 호세아는 단순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아니고,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틀거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 도덕적 실수, 잘못된 판단, 또는 의도와는 달리 견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의도치 않은 상황 악화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다툼, 원한, 또는 경솔한 말 한마디가 심각한 결과,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다툼을 시작했을 때 살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격한 감정의 영에 사로 잡혀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 25 장 8 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그 후에 네 이웃에게 욕을 보일 때에 네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작은 잘못이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돌아오라!

코츠케 레베 (Kotzker Rebbe)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호세아의 외침—“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엘로힘께로 돌아오라”를 선한 의도로 행한 행동이지만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경우로 해석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는 네가 네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음이라.” 즉, 죄는 죄지만, 넘어짐(stumble)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애초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르우벤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아버지의 침대를 옮기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나중에 그 행동으로 인하여 불러 드릴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하고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르우벤의 회개의 영적인 흐름의 맥을 이어 받아, 의도는 선하나 결과적으로 죄가 된 행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돌아서, 회개해야 됨을 촉구한 것입니다. 랍비 이츠חק 블라저 (R. Yitzchak Blazer)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누군가가 명철한 학자를 잘못되게 휘방했다면, 부끄러움 때문에 사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가 사람을 보내 “사과를 받아 주겠다”고 전하면, 회개를 통한 회복과 성숙은 훨씬 수월해 집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엘로힘께서 호세아를 보내시어 “회개의 초대장”을 전하셨습니다. 르우벤은 자발적으로 회개한 첫 성경의 인물이었고, 그의 공로로 인해 그의 후손인 호세아는 회개의 길을 더욱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르우벤은 벌을 받기 전, 스스로 내면에 심어진 도덕적 자각의 영에 따라 회개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다음과 같은 새롭고 면밀한 한 층의 회개의 범주를 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회개 선한 의도였지만 잘못된 판단에 대한 회개 아직 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행한 회개 그의 후손 호세아는 이러한 깊이를 바탕으로, 회개의 영적 능력과 위대함- 곧, 온

피조물들이 여호와와 빛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의 한 세대의 회개의 문을 여시는 첫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회개의 문을 보여주었고, 인간의 죄가 어떻게 여호와 엘로힘의 은혜 안에서 바뀌며 승화될 수 있는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샬롬.